

보도자료



KIHASA
한국보건사회연구원
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
<https://kihasa.re.kr>

배포일시 2024년 8월 6일(화)

보도일시 **즉시**

매 수 총 3매

『보건사회연구』, 'KCI 2023 인용지수 평가' 에서 최상위 1% 달성

- 사회과학일반 분야 학술지 중 2년 연속 1위 달성
- 전체 학술지 2,847종 중 8위 기록, 자기 인용 비율 4.6%로 높은 학문적 신뢰성 입증해
- 지난 5년간 KCI 영향력 지수 1.5배 이상 향상돼

□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직무대행 강혜규)이 발간하는 『보건사회연구』가 한국연구재단의 'KCI 2023 인용지수 평가'에서 ▲사회과학일반 분야 학술지 중 2년 연속 1위 ▲사회과학 분야 1,032종 중 8위 ▲전체 학술지 2,847종 중 8위를 달성했다.

표 1. 『보건사회연구』 KCI 영향력지수 연도별 순위

분야 구분	총 학술지 수	순위				
	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사회과학일반	80	1	2	4	1	1
사회과학	1,032	20	30	40	26	8
전체	2,847	25	33	47	31	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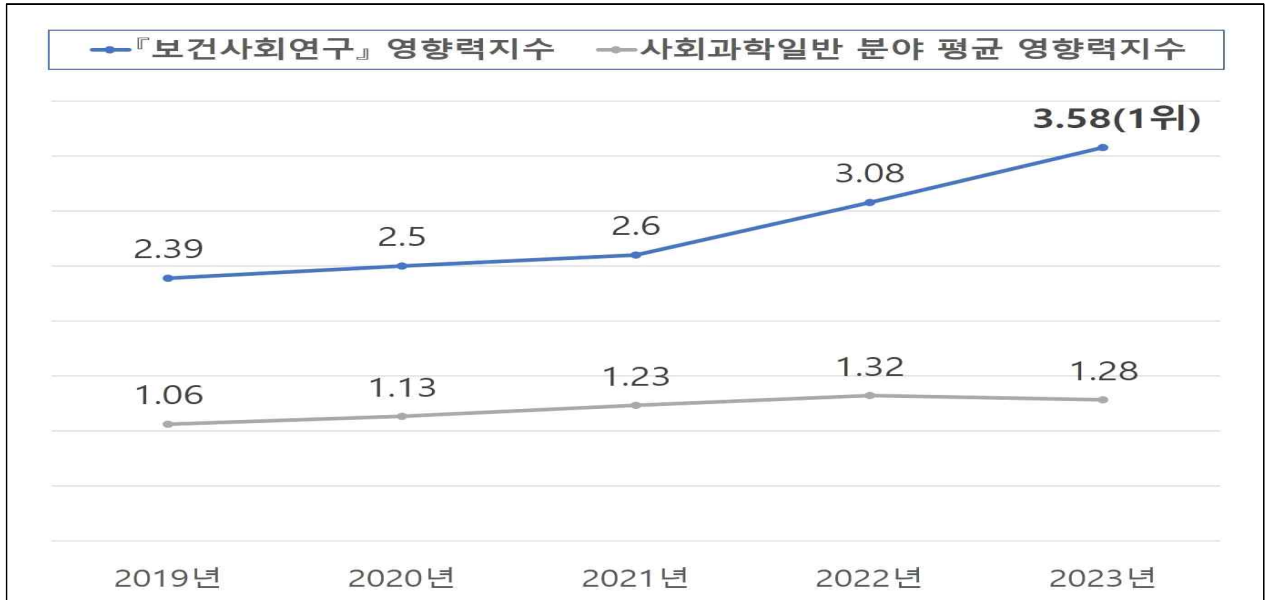
- 『KCI 2023 인용지수』는 KCI(한국학술지인용색인)에 등록된 2,800여 종의 학술지 논문으로부터 각 학술지가 2023년에 인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술지의 인용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.
- KCI 인용지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로서, 학계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학술지의 신뢰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.

표 2. 『보건사회연구』 KCI 인용지수 추이

기준 연도	KCI IF (2년)	KCI IF (5년)	중심성지수 (3년)	즉시성지수	자기인용 비율(2년)	사회과학 일반 순위
2023	3.58	3.23	3.373	0.78	4.60%	1
2022	3.08	3.11	3.077	0.73	4.36%	1
2021	2.6	2.83	3.137	0.72	4.55%	4
2020	2.5	2.46	2.091	0.47	4.62%	2
2019	2.39	2.29	2.828	0.39	4.51%	1

- 『보건사회연구』는 자기인용을 제외한 영향력 지수에서도 사회과학일반 분야 1위, 사회과학 분야 8위, KCI 전체 8위로 동일한 결과를 달성했다.
- KCI 전체 학술지의 자기인용 비율 평균은 약 23%로, 학술지 인용 횟수의 약 1/4은 자체 학술지의 논문끼리 인용한 것이다.
- 그러나 『보건사회연구』의 자기인용 비율은 4.6%로, 95% 이상의 인용이 다른 학술지에서 발생했다. 이는 『보건사회연구』에 수록된 연구가 학문적 중요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.

그림 1. 『보건사회연구』 KCI 영향력지수 연도별 추이



- 또한, 『보건사회연구』의 KCI 영향력지수는 지난 5년 동안 2019년 2.39에서 ▲2023년 3.58으로 1.5배 이상 향상되었다.
- 같은 기간에 『보건사회연구』가 속한 사회과학일반 분야의 영향력지수가 1.06에서 1.28로 소폭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, 국내 학계에서 『보건사회연구』가 미치는 학문적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.
- 강혜규 직무대행은 “『보건사회연구』는 40여 년간 보건의료, 사회복지, 인구, 노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왔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을 통해 학계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『보건사회연구』는 1981년 창간한 이래 지금까지 인구, 보건, 사회 및 경제 분야 이론과 정책을 아우르는 융합연구를 선도해 왔으며, 보건의료, 사회복지, 사회보장, 저출생·고령화, 보건복지 등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를 소개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기간행물이다.